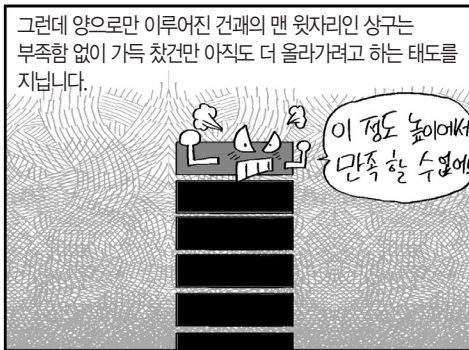


만화로 보는 '명상 주역 에세이' ⑤

글 이원규(미내사 클럽 대표)

그림 한정우(현재 학습만화와 명상만화를 작업중, 행복한 만화를 화두삼아 '호시우보란' 팀으로 작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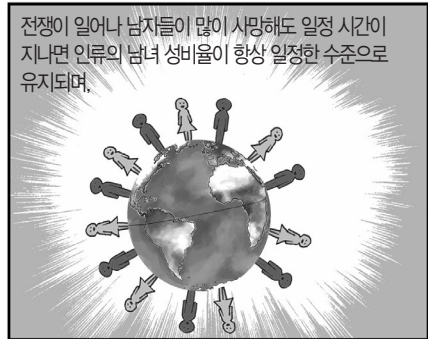
멈춤을 모르는 것, 이것이 항룡(亢龍)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연은 항상 적절한 곳에서 멈춤 줄을 압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계속 자라지 않고 적당한  
크기에서 '멈춤 줄 알고(知止),



전쟁이 일어나 남자들이 많이 사망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류의 남녀 성비율이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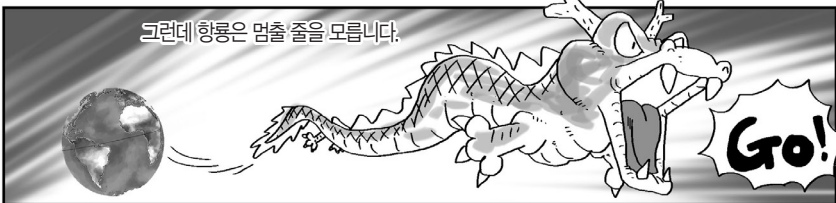
지구 생명의 필수 요소인 대기의 질소와 산소,  
탄소가 그 어느것도 극도로 커지거나 작아지지  
고 그 비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 모두는 자연이 '멈춤 줄을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유지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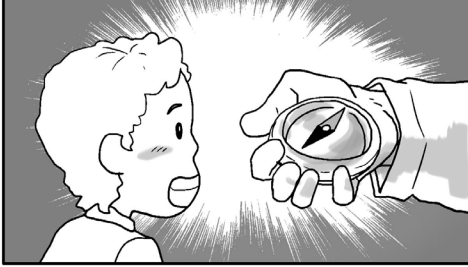
그런데 항룡은 멈춤 줄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계의 거대한 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연구와 통찰의 기본이 되었던 것은 어릴 때의 한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믿음이었다. 그것을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네댓 살이던 무렵, 아버지가 나침반을 보여주셨는데... 경이로운 체험이었습니다. 바늘이 그토록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이... 지금까지도 나는 ... 이 체험이 얼마나 깊고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주었는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물의 뒤에는 숨겨진 무언가가 틀림없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The Quantum Brain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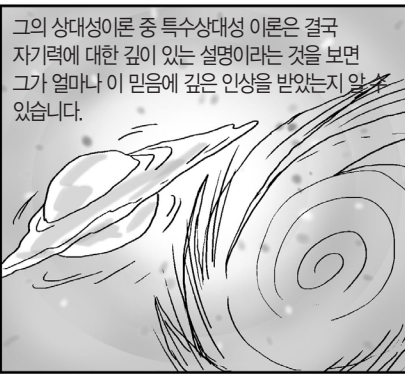
그는 이 체험으로 일생을 통해 견지해온 '믿음을 마음 깊이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것에는 그것을 일으킬 만한 제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결코 무작위적으로 돌아가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었던 그는 양자역학이 나왔을 때 '신은 결코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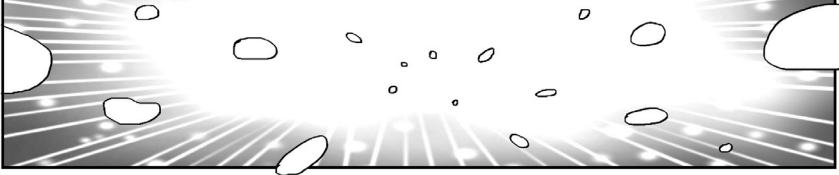
그의 상대성이론 중 특수상대성 이론은 결국 자기력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이라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 믿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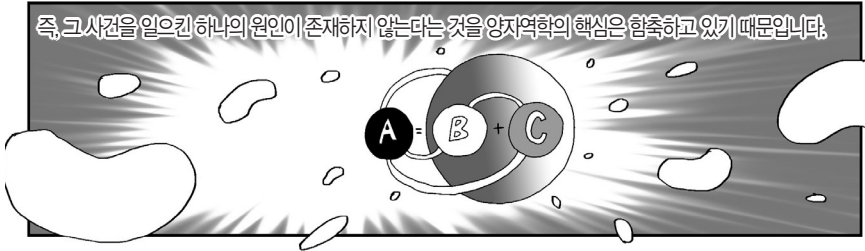
그러나 그의 '믿음'은 거기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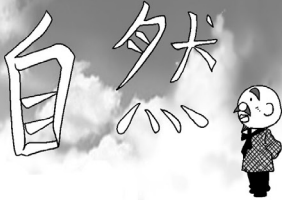
왜냐하면 이제 고전역학의 결정론적 세계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고 실제의 세계는 확률파동의 간섭에 의한 무작위적 원인에 의해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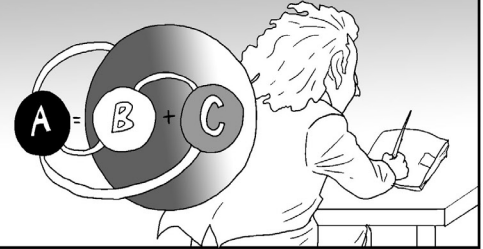
즉, 그 사건을 일으킨 하나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양자역학의 핵심은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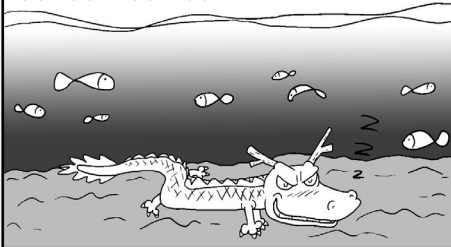
다시 말해 자연은 '아무런 이유없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힘을  
쓴다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이유없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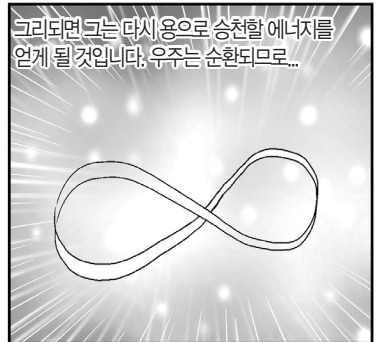
아인슈타인이란 물리학계의 항룡은, 그의 믿음을 멈추지  
못하고 생애의 후반부를 자신의 믿음을 관찰시키기 위해,  
실제의 핵심을 설명하는 양자역학이라는 새롭게 대두된  
진실을 외면하고만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느 시기, 어느 장소에서 거대한 힘을 얻은  
항룡은 스스로 자신의 패탄을 내려놓고 잠룡으로  
내려앉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용으로 승천할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순환되므로...



(다음 호에 계속)